

이미 신문 등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 가(의 문구가) 새겨진 조선인 강제 연행의 추모비(2004 년 건립)설치 갱신을 군마현이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회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군마현 지사에게 항의와 요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8 월 4 일 자로 아래의 서면을 송부했습니다.

2014 년 8 월 4 일

"조선인 강제 연행 추모비" 철거 방침에 대해 군마현 지사에게 보내는 항의와 요청

군마현 지사(群馬県知事) 오사와 마사아키(大澤正明) 님께

항의와 요청

지사께서 군마의 숲에 있는 "조선인 강제 연행 추모비" 철거 방침을 정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석의 철거 방침을 철회하고 설치의 갱신을 추진하며, 비석을 존속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똑바로 바라보며 반성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과 세계로부터 일본이 진정으로 신뢰받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비석의 철거는 그러한 길을 막는 일이 됩니다.

또한, 비석의 철거는 일본 스스로가 군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전쟁 후에 쌓아 온 평화와 민주주의를 더욱더 바라고 요구하는 길로 군마 현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사께서 비석의 존속에 대한 영단을 내려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